

『東醫寶鑑』을 이용한 太陰人 葛根解肌湯의 適應證 확장 研究

박창환 · 이병욱 · 백진웅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부

Extended indications of Taeum-type Galgeunhaegi-tang using 『Dongeuibogam』

Park Chang-Hwan · Lee Byung-Wook · Baek Jin-Ung

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Indications of Galgeunhaegi-tang(葛根解肌湯) for Taeum-type on 『Donguisusebowon』 are small.

Therefore, indications of Galgeunhaegi-tang for Taeum-type need to be extended for broader clinical use. There would be some methods to do that, and we could review 『Dongeuibogam』 that Four-Constitution Medicine formulas are based on. We reviewed Galgeunhaegi-tang, which is the origin of Galgeunhaegi-tang, and their modified formula(加減方) on 『Dongeuibogam』.

As a result, we supposed 10 indications of non-classical formula(後世方) Galgeunhaegi-tang as possible indications of Galgeunhaegi-tang for Taeum-type.

Keywords :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Dongeuibogam(東醫寶鑑), Taeum-type(太陰人), Galgeunhaegi-tang(葛根解肌湯), Extended indications

I. 序 論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에 보면 “少陰人과 少陽人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세히 정리하였으나 太陰人과 太陽人에 대해서는 겨우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경험이 부족하고 체력이 다 하였기 때문이다. 禮記에 말하기를 ‘책을 열어봐도 모르겠으면 생각을 해 보라’ 라고 하였듯이 太陰人과 太陽人에 대해서도 생각하여 이치를 얻는다면 여기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少陰少陽人論則 略得詳備 太陰太陽人論則 僅成簡約 經驗未遍而 精力已憊故也 記曰 開而不達則思 若 太陰太陽人 思而得之則 亦何損乎簡約

哉!)”¹⁾라는 구절이 있다. 이처럼 李濟馬 본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太陰人論은 그 내용이 부족하므로 太陰人 生理論, 病理論, 方劑論 등에 대한 보다 자세히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추가로 더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한 가지 작업이 바로 太陰人 處方の 適應證 확대에 관한 연구다. 『東醫壽世保元』에는 李濟馬가 新定한 24 개의 太陰人 處方이 수록되어 있는데²⁾,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되어 있는 이 處方들의 適應證 및 臨床例로는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太陰人 病證에 충분히 대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太陰人 處方을 새로이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李濟馬가 新定한 處方

접수 ▶ 2012년 3월 27일 수정 ▶ 2012년 7월 27일 채택 ▶ 2012년 7월 30일
 교신저자 백진웅,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Tel 051-510-8452 E-mail mukjagan@naver.com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p.731-732.
 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p.716-720.

의 適應證을 확장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證狀別로 각 體質別 四象方 및 加減方을 제시한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 四象方의 문헌적 근거를 파악한 후 그 문헌의 폭넓은 탐색을 통해 四象方 適應證의 확장을 도모하는 문헌적 탐구 방법을 채택한 연구는 없었다³⁾⁴⁾. 이에 著者は 이미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四象方의 문헌적 근거를 파악한 후 그 문헌의 폭넓은 탐색을 통해 四象方 適應證의 확장을 도모하는 문헌적 탐구 방법을 제시하고 또 그 구체적 예를 제시한 “『東醫寶鑑』을 이용한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에 관한 研究 - 補中益氣湯을 例로 들어 -”⁵⁾라는 연구와 이의 후속 연구로 少陽人 荊防敗毒散證의 확장을 시도한 “『東醫寶鑑』을 이용한 少陽人 荊防敗毒散의 適應證 확장 研究”⁶⁾를 수행한 바 있다.

이 두 선행 연구에서 각각 『東醫寶鑑』에 수록된 病證을 토대로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少陰人과 少陽人 處方의 適應證 확대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太陰人 處方의 適應證 확대 사례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후속 연구의 일환으로 太陰人 葛根解肌湯을 대상으로 適應證 확대를 시도한 본 연구를 시작하였고⁷⁾, 일정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 3) 홍진우, 이명렬,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에 관한 研究 - 補中益氣湯을 例로 들어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Vol.24(3). p.28.
- 4) 박진우,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少陽人 荊防敗毒散의 適應證 확장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2. Vol.25(1). pp.17-18.
- 5) 홍진우, 이명렬,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에 관한 研究 - 補中益氣湯을 例로 들어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Vol.24(3). pp.27-47.
- 6) 박진우,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少陽人 荊防敗毒散의 適應證 확장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2. Vol.25(1). pp.17-29.
- 7) 太陰人 處方 24 개 중에서 葛根解肌湯을 선택한 이유는 後世方에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葛根解肌湯이 있으므로 四象方 葛根解肌湯과 後世方 葛根解肌湯의 適應證을 비교해가면서 適應證 확대를 시도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 研究 方法

- 1) 선행 연구에서 著者は “『東醫壽世保元』에 인용된 대부분의 病證 및 處方 관련 내용들이 『東醫寶鑑』에서 인용된 것임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東醫寶鑑』은 『東醫壽世保元』에 인용된 既存 醫學 내용의 기본 出典이라고 할 수 있다.”⁸⁾라는 주장과 “『東醫寶鑑』은 『東醫壽世保元』에 인용된 기존 醫學의 病證 및 處方의 出典이지만 방대한 분량 중에서 실제 인용된 부분이 극히 적음을 고려할 때, 『東醫寶鑑』의 나머지 부분을 체계적으로 재해석해볼 필요가 있다.”⁹⁾라는 의견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¹⁰⁾라는 주장을 토대로 『東醫寶鑑』을 四象方 適應證 확장 연구를 위한 검토 대상 문헌으로 삼았다. 그리고 四象 處方名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東醫寶鑑』에서 관련 문장을 추출한 후 그 문장 내용을 분석하여 四象方 適應證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제시 및 채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역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¹¹⁾. 즉 본 연구의 대상 處方이 葛根解肌湯이므로 ‘葛根解肌湯’이란 處方名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東醫寶鑑』에서 관련 문장을 추출 및 분석함으로써 太陰人 葛根解肌湯의 適應證 확장을 시도할 것이다.
- 2) 『東醫寶鑑』에는 ‘葛根 柴胡 黃芩 芍藥 羌活 石膏 升麻 白芷 桔梗 各一錢 甘草 五分 薑三棗二’로 구성된 「雜病篇·寒門」의 葛根解肌湯과 ‘葛根 3錢 麻黃 黃芩 各二錢 芍藥 一錢半 桂枝 一錢 甘草 八分 薑三棗二’로 구성된 「雜病篇·瘟疫門」의 葛根解肌湯의 두 종류가 있다¹²⁾¹³⁾. 李濟馬가 이 중에서 「雜病篇·寒門」의 葛根解肌湯을 唐宋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病 經驗行用要藥으로 발췌했음을 고려한다면¹⁴⁾, 이를 太陰人

- 8) 홍진우, 이명렬,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에 관한 研究 - 補中益氣湯을 例로 들어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Vol.24(3). p.29.
- 9) 이필우, 윤창렬. 東醫壽世保元 인용문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4. 제12권 2호. p.84.
- 10) 홍진우, 이명렬,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에 관한 研究 - 補中益氣湯을 例로 들어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Vol.24(3). p.29.
- 11) 박진우,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少陽人 荊防敗毒散의 適應證 확장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2. Vol.25(1). p.18.
- 12) 許浚 著, 金祖堉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1450.
- 13) 許浚 著, 金祖堉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1078.

葛根解肌湯의 基源處方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내용만을 검토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處方 모두 葛根이 君藥이며, 桂枝를 제외하면 「雜病篇·瘟疫門」의 葛根解肌湯의 구성 藥材가 모두 「雜病篇·寒門」의 葛根解肌湯에 포함된다. 즉 處方名이 동일할 뿐 아니라 藥材 구성의 유사성도 크다. 게다가 「太陰人 肝受熱 裏熱病論」에서 太陰人 葛根解肌湯의 適應證을 설명한 부분을 보면 瘟疫에 대한 서술이 적지 않다.

따라서 비록 「雜病篇·寒門」의 葛根解肌湯이 太陰人 葛根解肌湯의 基源處方임은 분명하지만, 「雜病篇·瘟疫門」의 葛根解肌湯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東醫寶鑑』에 수록된 두 종류의 葛根解肌湯 관련 내용을 모두 추출 및 분석하였다(靈樞曰 尺膚熱深 脈盛燥者 病瘟也. 王叔和曰 瘟病脈 陰陽俱盛 病熱之極 浮之而滑 沈之散澁. 脈法曰 瘟病二三日 體熱 腹滿 頭痛 食飲如故 脈直而疾 八日死, 瘟病四五日 頭痛 腹滿而吐 脈來細而強 十二日死, 八九日 頭身不痛 目不赤 色不變而 反利 脈來澁 按之不足 舉時大 心下堅 十七日死. 龔信曰 瘟病 穰穰大熱 脈細小者 死 瘟病 下利 痛甚者 死. 萬歷丙戌 余寓大梁 瘟疫大作 士民多斃 其證 增寒壯熱 頭面項頰赤腫 咽喉腫痛 昏愎 余發一秘方 名 二聖救苦丸 大黃四兩 豬牙皂角二兩 麵糊和丸 綠豆大 五七十丸 一服即 汗 一汗即 愈 稟壯者 百發百中 皂角 開關竅 發其表 大黃 瀉諸火 通其裏. 感四時不正之氣 使人 痰涎壅盛 煩熱 頭疼 身痛 增寒壯熱 項強 睛疼 或飲食如常 起居依舊 甚至聲啞 或眼赤口瘡 大小腮腫 喉痺 咳嗽稠粘 噴嚏. 論曰 右諸證 ~ 體熱 腹滿 自利者 熱勝則 裏證也 當用 葛根解肌湯)¹⁵⁾¹⁶⁾.

3) 본 연구의 목적이 『東醫寶鑑』을 이용한 太陰人 葛根解肌湯의 適應證 확대이므로 가급적이면 후보가

될 만한 관련 증상들의 폭넓은 검토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두 종류의 葛根解肌湯 이 외에 ‘解肌湯’이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두 處方인 清熱解肌湯과 四物解肌湯과 관련된 문장도 함께 추출 및 분석하였다.

4) 본 연구에서 底本으로 삼은 문헌은 선행 연구와 같다. 즉 『東醫壽世保元』 原文은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教室에서 공동으로 출간한 교재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改訂增補 四象醫學』¹⁷⁾에 수록된 辛丑本 原文을 底本으로 삼았고, 『東醫寶鑑』 原文은 그 동안의 校勘 연구 성과가 충실히 반영되었고 또 추가 작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對譯東醫寶鑑』¹⁸⁾에 수록된 原文을 底本으로 삼았다.

2. 『東醫寶鑑』을 이용한 太陰人 葛根解肌湯의 適應證 검토

1) 『東醫壽世保元』에 收錄된 太陰人 葛根解肌湯證 및 後世方 葛根解肌湯證

太陰人 및 後世方 葛根解肌湯證과 관련해 『東醫壽世保元』에 收錄된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太陰人 肝受熱 裏熱病論」 중에서

가. “朱肱이 말하기를 ‘陽毒으로 인해 얼굴에 붉은 반점이 비단 무늬처럼 나타나고 목구멍이 아프고 피고름을 뱉는 경우에는 葛根解肌湯이나 黑奴丸이 적당하다. 陽毒과 壞傷寒은 의사가 치료할 수 없다. 그러나 정신과 혼백이 이미 다한 것 같아도 心下 부위가 아직 따뜻하다면 입을 벌려 물에 갠 黑奴丸을 흘려 넣는데 만약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곧 살아난다.’라고 하였다.

李梴이 말하기를 ‘약간의 惡寒이 있으면서 열이 나는 경우에는 葛根解肌湯이 적당하다. 눈이 아프고 코가 건조하고 일정한 시간에 열이 나면서 땀이 나고 대변이 막히고 갈증이 나고 미친 듯 헛소리를 하면 調胃承氣湯이 적당하다. 熱이 表에 있어 눈이 아프고 잠이 오지 않으니 解肌湯이 적당하고, 熱이 裏로 들어가 미친 듯 헛소리를 하니 調胃承氣湯이 적당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1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서울. 집문당. 2011.

18) 許浚 著, 金祖平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315.

14)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715.

15)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p.709-710.

16) 앞으로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出處에 따라 「雜病篇·寒門」의 葛根解肌湯을 葛根解肌湯(傷寒)으로, 「雜病篇·瘟疫門」의 葛根解肌湯을 葛根解肌湯(瘟疫)으로 구분할 것이다. 葛根解肌湯(傷寒)은 一名 柴葛解肌湯이라고 하므로 葛根解肌湯(傷寒)을 柴葛解肌湯이라 표기하여 두 葛根解肌湯을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太陰人 葛根解肌湯과의 연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 부득이하게 葛根解肌湯(傷寒)과 葛根解肌湯(瘟疫)으로 구분하였다.

龔信이 말하기를 ‘陽明病으로 눈이 아프고 코가 건조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에는 葛根解肌湯이 적당하다. 三陽病이 심하여 陽毒으로 변하면 얼굴과 눈이 붉어지고 몸이 누렇게 되고 노란색과 붉은 색이 섞인 설사를 한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경우에 대해 내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말한 여러 증상에는 마땅히 太陰人 葛根解肌湯이나 黑奴丸을 사용해야 한다(朱肱曰 陽毒 面赤斑 斑如錦紋 咽喉痛 唾膿血 宜葛根解肌湯 黑奴丸 陽毒 及 壞傷寒 醫所不治 精魄已竭 心下尚煖 幹開其口 灌黑奴丸 藥下咽 卽活. 李梴曰 微惡寒 發熱 宜葛根解肌湯 目疼 鼻乾 潮汗 閉澁 滿渴 狂譫 宜調胃承氣湯 熱在表則 目疼 不眠 宜解肌湯 熱入裏則 狂譫 宜調胃承氣湯. 龔信曰 陽明病 目疼 鼻乾 不得臥 宜葛根解肌湯. 三陽病深變爲陽毒 面赤眼紅 身發斑黃 或下利黃赤. 論曰 右諸證 當用 葛根解肌湯 黑奴丸.)¹⁹⁾

나. “『靈樞』에서 말하기를 ‘尺膚의 熱이 深하고 脈이 盛하면서 燥證이 있는 경우는 瘧病이다.’라고 하였다.

王叔和가 말하기를 ‘瘧病의 脈이 寸關尺 부위 모두 盛한 경우는 熱이 극심한 것으로 살짝 눌러 진맥할 때에는 脈이 滑하고, 깊이 눌러 진맥할 때에는 散澁하다’라고 하였다.

『脈法』에서 말하기를 ‘瘧病을 앓은 지 二三日 되었을 때, 몸에 열이 나고 배가 그득하고 머리가 아프고 먹는 건 그대로이고 脈이 곧고 빠른 경우에는 八日이면 죽는다. 瘧病을 앓은 지 四五日 되었을 때, 머리가 아프고 배가 그득하면서 구토하고 脈 오는 것이 細하면서 強할 경우에는 十二日이면 죽는다. 또 八九日 되었을 때, 머리와 몸이 아프지 않고 눈이 붉지 않고 몸의 색이 변하지 않고 반대로 설사를 하고 脈 오는 것이 澁하면서 누르면 힘이 없고 맥을 살짝 눌러 짚으면 大하며 心下가 단단한 경우에는 十七日이면 죽는다.’라고 하였다.

龔信이 말하기를, ‘瘧病으로 大熱이 나고 脈이 細小한 경우에는 죽는다. 또 瘧病으로 설사하면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도 죽는다. 萬曆丙戌년에 내가 大梁에 머무르고 있을 때, 瘧疫이 크게 발생하여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 그 증상이 惡寒과 發熱이 매우 심하고 머리와 얼굴과 목과 뺨이 붉게 붓고 목구멍이 부으며 아프고 정신을 잃는다. 내가 秘方 하나를 만들어서 이름을 二聖救苦丸이라고 지었다. 大黃四兩 豬牙皂角二兩을 가루내어 밀가루 풀로 綠豆 크기의 알약으로 만든다. 50~70 알을 한 번 복용하면 땀이 나는데, 땀이 한 번 나고 나면 낫는다. 원래 건강하던 사람의 경우에는 백프로 낫는다. 사람이 사계절의 바르지 못한 기운에 감염되면 가래가 쌓여 많아지고 답답하며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오한과 발열이 매우 심하고 목이 뻣뻣하고 눈동자가 아프고 혹은 음식 섭취는 이전과 같고 일상생활도 달라진 것이 없으면서 심할 경우에는 목이 쉬고 또 눈이 붉어지고 입이 헐고 뺨에 크고 작은 종기가 생기고 목구멍이 막히고 끈끈한 가래가 생기고 재채기를 한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경우에 대해 내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말한 여러 증상 중에서 몸에 열이 나고 배가 그득하고 설사를 하면서 열이 성한 경우에 裏證이니 葛根解肌湯을 사용해야 한다(靈樞曰 尺膚熱深 脈盛燥者 病瘧也. 王叔和曰 瘧病脈 陰陽俱盛 病熱之極 浮之而滑沈之散澁. 脈法曰 瘧病二三日 體熱 腹滿 頭痛 食飲如故 脈直而疾 八日死, 瘧病四五日 頭痛 腹滿而吐 脈來細而強 十二日死, 八九日 頭身不痛 目不赤 色不變而反利 脈來澁 按之不足 舉時大 心下堅 十七日死. 龔信曰 瘧病 穰穰大熱 脈細小者 死 瘧病 下利 痛甚者 死. 萬曆丙戌 余寓大梁 瘧疫大作 士民多斃 其證 增寒壯熱 頭面項頰赤腫 咽喉腫痛 昏憤 余發一秘方 名 二聖救苦丸 大黃四兩 豬牙皂角二兩 麵糊和丸 綠豆大 五七十九一服卽 汗 一汗卽 愈 稟壯者 百發百中 皂角 開關竅 發其表 大黃 瀉諸火 通其裏. 感四時不正之氣 使人 痰涎壅盛 煩熱 頭疼 身痛 增寒壯熱 項強 睛疼 或飲食如常 起居依舊 甚至聲啞 或眼赤口瘡 大小腮腫 喉痺 咳嗽稠粘 噴嚏. 論曰 右諸證 ~ 體熱 腹滿 自利者 熱勝則 裏證也 當用 葛根解肌湯.)²⁰⁾

② 『唐宋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 中에서

“葛根解肌湯 葛根 升麻 黃芩 桔梗 白芷 柴胡 白芍藥

1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p.708-709.

20)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p.709-710.

羌活 石膏 各 1錢 甘草 5分, 이 처방은 龔信의 『醫鑑』에 ‘陽明病으로 눈이 아프고 코가 건조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다. 지금 이것을 太陰人 체질에 맞게 수정하려면 柴胡 芍藥 羌活 石膏 甘草를 제거해야 한다(葛根解肌湯 葛根 升麻 黃芩 桔梗 白芷 柴胡 芍藥 羌活 石膏 各 1錢 甘草 5分 此方 出於龔信醫鑑書中 治陽明病 目疼 鼻乾 不得臥 今考更定 此方 當去 柴胡 芍藥 羌活 石膏 甘草).²¹⁾

③ 「新定 太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中에서

“葛根解肌湯 葛根 3錢 黃芩 藁本 各1錢5分 桔梗 升麻 白芷 各1錢”²²⁾

上記한 내용 중에서 「太陰人 肝受熱 裏熱病論」 中에서 발췌한 ① 번을 살펴보면 모두 두 단락의 내용이 있는데, ‘가’번에서는 朱肱과 李梴과 龔信의 醫論을 인용해 “陽毒으로 인해 얼굴에 붉은 반점이 비단 무늬처럼 나타나고 목구멍이 아프고 피고름을 뱉는 증상”, “熱이 表에 있어 눈이 아프고 잠이 오지 않고 약간의 惡寒이 있으면서 열이 나는 증상”, “陽明病으로 눈이 아프고 코가 건조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상”, “三陽病이 심해 陽毒으로 변하여 얼굴과 눈이 붉어지고 몸이 누렇게 되고 노란색과 붉은 색이 섞인 설사를 하는 증상”의 네 가지를 太陰人 葛根解肌湯의 適應證으로 제시하였다.

‘나’번에서는 『靈樞』와 王淑和와 『脈法』과 龔信의 醫論을 인용해 “瘧病으로 인해 尺膚의 熱이 深하고 脈이 盛하면서 燥證이 있는 증상”, “瘧病으로 熱이 극심하여 寸關尺 부위 모두의 脈이 盛하고, 살짝 눌러 진맥할 때에는 脈이 滑하고, 깊이 눌러 진맥할 때에는 散澁한 증상”, “瘧病을 앓은 지 二三日 되었을 때, 몸에 열이 나고 배가 그득하고 머리가 아프고 먹는 건 그대로이고 脈이 곧고 빨라 八日이면 죽는 증상”, “瘧病을 앓은 지 四五日 되었을 때, 머리가 아프고 배가 그득하면서 구토하고 脈 오는 것이 細하면서 強해 十二日이면 죽는 증상”, “瘧病을 앓은 지 八九日 되었을 때, 머리와 몸이 아프지 않고 눈이 붉지 않고 몸의 색이 변하지

않고 반대로 설사를 하고 脈 오는 것이 澁하면서 누르면 힘이 없고 맥을 살짝 눌러 쫓으면 大하며 心下가 단단하여 十七日이면 죽는 증상”, “瘧病으로 大熱이 나고 脈이 細小한 증상”, “瘧病으로 설사하면서 통증이 심한 증상”, “惡寒과 發熱이 매우 심하고 머리와 얼굴과 목과 뺨이 붉게 붓고 목구멍이 부으며 아프고 정신을 잃는 증상”, “가래가 쌓여 많아지고 답답하며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오한과 발열이 매우 심하고 목이 뻣뻣하고 눈동자가 아프고 혹은 음식 섭취는 이전과 같고 일상생활도 달라진 것이 없으면서 심할 경우에는 목이 쉬고 또 눈이 붉어지고 입이 헐고 뺨에 크고 작은 종기가 생기고 목구멍이 막히고 끈끈한 가래가 생기고 재채기를 하는 증상”의 아홉 가지 증상을 太陰人 葛根解肌湯의 適應證으로 제시하였다.

「唐宋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 中에서 발췌한 ② 번을 살펴보면, “陽明病으로 눈이 아프고 코가 건조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상”을 葛根解肌湯 適應證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葛根解肌湯證은 四象方이 아니라 소위 後世方 葛根解肌湯의 適應證이기 때문에 太陰人 葛根解肌湯의 適應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목에서 이미 ‘太陰人病에 사용해 온 중요한 藥’이라고 밝혔고,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 病證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太陰人 체질에 맞추기 위해 柴胡·芍藥·羌活·石膏·甘草를 제거해야한다는 언급만 한 것을 볼 때, 여기에 제시된 適應證을 四象方 葛根解肌湯의 適應證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新定 太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中에서 발췌한 ③ 번을 살펴보면, 太陰人 葛根解肌湯의 處方 구성 藥材만 기재했을 뿐 아무런 適應證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내용 중 중복되는 適應證을 제외한 證狀들을 요약 및 정리하면 아래의 표 1 에서 보는 것처럼 『東醫壽世保元』에서는 모두 13 개의 증상을 太陰人 葛根解肌湯의 適應證으로 제시하였다.

2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715.
2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716.

〈표 1〉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太陰人 葛根解肌湯證²³⁾

연번	證狀
1	太陰人의 얼굴에 붉은 반점이 비단 무늬처럼 나타나고 목구멍이 아프고 피고름을 뱉는 증상
2	太陰人이 눈이 아프고 잠이 오지 않고 약간의 惡寒이 있으면서 열이 나는 증상
3	太陰人이 눈이 아프고 코가 건조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상
4	太陰人이 얼굴과 눈이 붉어지고 몸이 누렇게 되고 노란색과 붉은 색이 섞인 설사를 하는 증상
5	太陰人이 尺膚의 熱이 深하고 脈이 盛하면서 燥證이 있는 증상
6	太陰人이 熱이 극심하여 寸關尺 부위 모두의 脈이 盛하고, 살짝 눌러 진맥할 때에는 脈이 滑하고, 깊이 눌러 진맥할 때에는 散澁한 증상
7	太陰人이 病을 앓은 지 二三日 되었을 때, 몸에 열이 나고 배가 그득하고 머리가 아프고 먹는 건 그대로이고 脈이 끈고 빨라 八日이면 죽는 증상
8	太陰人이 病을 앓은 지 四五日 되었을 때, 머리가 아프고 배가 그득하면서 구토하고 脈 오는 것이 細하면서 強해 十二日이면 죽는 증상
9	太陰人이 病을 앓은 지 八九日 되었을 때, 머리와 몸이 아프지 않고 눈이 붉지 않고 몸의 색이 변하지 않고 반대로 설사를 하고 脈 오는 것이 澁하면서 누르면 힘이 없고 맥을 살짝 눌러 짚으면 大하며 心下가 단단하여 十七日이면 죽는 증상
10	太陰人이 大熱이 나고 脈이 細小한 증상
11	太陰人이 설사하면서 통증이 심한 증상
12	太陰人이 惡寒과 發熱이 매우 심하고 머리와 얼굴과 목과 뺨이 붉게 붓고 목구멍이 부으며 아프고 정신을 잃는 증상
13	太陰人이 가래가 쌓여 많아지고 답답하며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오한과 발열이 매우 심하고 목이 뻣뻣하고 눈동자가 아프고 혹은 음식 섭취는 이전과 같고 일상생활도 달라진 것이 없으면서 심할 경우에는 목이 쉬고 또 눈이 붉어지고 입이 헐고 뺨에 크고 작은 종기가 생기고 목구멍이 막히고 끈끈한 가래가 생기고 재채기를 하는 증상

2) 『東醫寶鑑』에 收錄된 後世方 葛根解肌湯(傷寒)證과 葛根解肌湯(溫疫)證

『東醫寶鑑』중 後世方 葛根解肌湯(傷寒)와 관련된 내용은 「雜病篇」의 3 곳에 수록되어 있고, 後世方 葛根解肌湯(溫疫)證과 관련된 내용은 「雜病篇」의 1 곳에 수록되어 있다. 이 내용들을 引用한 후 각각의 考察을 통해 適應證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東醫寶鑑』에 收錄된 後世方 葛根解肌湯(傷寒)證과 관련된 내용

① 【雜病篇·寒(上)可汗證】

“葛根解肌湯과 升麻葛根湯은 사계절 모두의 傷寒과 溫疫을 치료한다. 처방은 모두 寒門을 보라. (葛根解肌

23) 아래의 증상들은 陽明病이나 溫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증상들이다. 따라서 原文에는 ‘陽明病으로 인해’ 혹은 ‘溫病으로 인해’ 등의 구절이 있는데, 엄밀히 말해 여기서는 ‘溫病’이 아니라 ‘太陰人 肝受熱裏熱病’이 정확한 證名이다. 그래서 陽明病이나 溫病 등의 기존 證明은 삭제하고 증상만 열거하였다.

湯 升麻葛根湯 治四時傷寒 溫疫 方並見傷寒)”²⁴⁾

【考察】이 인용문에서는 傷寒과 溫疫에 사용한다고 언급했을 뿐 後世方 葛根解肌湯(傷寒)의 구체적 適應證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寒(下)門’의 ‘感寒及四時傷寒’ 항목과 ‘溫疫門’의 ‘溫疫形證’ 항목을 보면 다양한 四時傷寒 증상과 溫疫 증상들이 언급되어 있다.

먼저 “風寒으로 감기에 걸린 것을 보통 四時傷寒이라고 하는데 沖和散, 正氣散, 參蘇飲 (처방은 위를 참고하라), 沃雪湯, 交加散, 十味芍蘇散 方見溫疫, 對金飲子 (처방은 위를 참고하라) 등이 적당하다(凡感冒風寒 通謂之四時傷寒 宜沖和散 正氣散 參蘇飲方見上 傷寒陽證 沃雪湯 交加散 十味芍蘇散方見溫疫 對金飲子方見上).”²⁵⁾라는 구절과 각 處方들의 主治證을 설명한 “沖和散은 계절에 관계없이 風寒에 상한 것을 치료한다(沖和散 治四時感冒 風寒).”²⁶⁾, “不換金正氣散은 傷寒陰證으로 머리와 몸이 아프고 寒熱이 왕래하는 증상을 치료한다(不換金正氣散 治傷寒陰證 頭痛身疼 或寒熱往來).”²⁷⁾, “參蘇飲은 風寒에 상해서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기침하는 것을 치료하고 또 內傷七情으로 痰이 盛해져 가슴이 그득하고 潮熱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參蘇飲 治感傷風寒頭痛 發熱 咳嗽及內因七情 痰盛胸滿 潮熱).”²⁸⁾, “沃雪湯은 四時傷寒을 풀어준다(沃雪湯 解利 四時傷寒 以此溫和表裏 通順陰陽).”²⁹⁾, “交加散: 五積散은 성질이 따뜻하고 人蔘救毒散은 성질이 서늘한데, 약한 감기에 걸렸을 때 두 처방을 5:5로 섞어서 달여 먹으면 사기가 저절로 흩어진다(交加散 五積散性溫 人蔘救毒散性涼 凡人遇些少感冒 取兩對半 合和煎服 則邪氣自散矣).”³⁰⁾, “五積散은 風寒에 상해서 머리와 몸이

24)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010.

25)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p.1135-1136.

26)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136.

27)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088.

28)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091.

29)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136.

30)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136.

아프고 四肢가 차고 가슴과 배가 아프고 嘔吐와 泄瀉를 하고 또 안으로는 날 것이나 찬 것을 먹어서 손상되고 밖으로는 찬바람에 상한 것을 모두 치료한다(五積散 治感傷風寒 頭痛身疼 四肢逆冷 胸腹作痛 嘔吐泄瀉 或內傷生冷 外感風冷 並皆主之).³¹⁾, “人參敗毒散은 유행성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뻐뻐하고 팔다리에 답답한 열이 나면서 아프고 또 풍에 상해서 기침하고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탁해진 것을 치료한다(人參敗毒散 治傷寒時氣 發熱頭痛 項強 肢體煩疼 及傷風咳嗽 鼻塞聲重).³²⁾”, “十味芍蘇散은 溫熱瘟疫病을 치료한다(十味芍蘇散 溫熱瘟疫病).³³⁾”, “對金飮子은 술과 음식에 상했을 때 胃氣를 고르게 하고 痰을 삭힌다(對金飮子 治酒食傷 和胃消痰).³⁴⁾라는 구절을 참고할 때, 四時傷寒의 구체적 증상은 “머리와 몸이 아프고 寒熱이 왕래하는 증상”,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기침하는 증상”, “痰이 盛해져 가슴이 그득하고 潮熱이 나는 증상”, “머리와 몸이 아프고 四肢가 차고 가슴과 배가 아프고 嘔吐와 泄瀉를 하는 증상”,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뻐뻐하고 팔다리에 답답한 열이 나면서 아픈 증상”, “기침하고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탁해진 증상”의 여섯 종류로 정리할 수 있다.

또 瘟疫 증상은 “열이 나고, 허리가 아프면서 뻐뻐하고, 다리가 수축되어 펴지 못하고, 정강이뼈 안이 끊어지는 것 같고, 눈앞에 꽃 같은 것이 어른거리고, 으슬으슬 오한이 들고는 또 열이 나는 증상”, “몸이 떨려 스스로 멈출 수 없고, 혹은 속에서 열이 나며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고 목이 마르고 목소리가 쉬는 증상”, “머리가 무겁고 목이 뻐뻐하고, 피부와 근육이 뻐뻐하며 저리고, 혹은 사기가 쌓여서 인후부와 목 부위에 멍울이 생기는 증상”, “잠깐 오한이 났다가 잠깐 열이 나고, 폐기가 손상되어 심한 기침과 구역질이 나고, 혹은 몸에 열이 나면서 발진이 돋고, 숨이 가쁘면서 기침이 나는 증상”, “가래가 쌓여 많아지고 답답하며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오한과 발열이 매우 심하고 목이 뻐뻐하고 눈동자가 아프고 혹은 음식 섭취는

이전과 같고 일상생활도 달라진 것이 없으면서 심할 경우에는 목이 쉬고 또 눈이 붉어지고 입이 헐고 뺨에 크고 작은 종기가 생기고 목구멍이 막히고 끈끈한 가래가 생기고 채채기를 하는 증상”의 다섯 종류로 정리할 수 있다(○ 冬合寒反暖 春發瘟疫 其證 發熱 腰痛強急 脚縮不伸 胎中欲目中生花 或瀉瀉增寒復熱. ○ 春合暖反涼 夏發燥疫 其證 身體戰掉 不能自禁 或內熱口乾 舌破咽塞聲嘶. ○ 夏合熱反寒 秋發寒疫 其證 頭重頸直 皮肉強痺 或蘊而結核 起於咽喉頸項之側 布熱毒於皮膚分肉之中. ○ 秋合涼反陰雨 冬發濕疫 其證 乍寒乍熱 損傷肺氣 暴嗽嘔逆 或體熱發斑 喘咳引氣(三因). ○ 感四時不正之氣 使人痰涎壅盛 煩熱 頭疼身痛 增寒壯熱 項強時疼 或飲食如常 寄居依舊 甚至聲啞或赤眼 口瘡大小 腮腫喉痺 咳嗽稠粘 噴嚏).³⁵⁾

비록 앞에서 살펴본 여섯 종류의 四時傷寒 증상과 다섯 종류의 瘟疫 증상 모두를 葛根解肌湯(傷寒)의 適應證으로 보기에 너무 광범위하다는 反論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문장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이상에서 언급한 증상 모두를 葛根解肌湯(傷寒)의 適應證으로 제시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雜病篇·寒(上)·陽明形證】

“手陽明大腸經은 足陽明胃經의 表가 되고, 大腸은 肺와 表裏가 된다. 그러므로 약간 으슬으슬하고 열이 나는 것은 經病이고 따라서 葛根解肌湯이 적당하다. ~ 足陽明胃經은 肌肉 사이가 표가 되고 胃腑가 裏가 된다. 따라서 熱이 표에 있으면 눈이 아프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데, 이때는 葛根解肌湯이 적당하다(陽明者 大腸爲標 與肺爲表裏 故微惡寒發熱 爲經病 宜葛根解肌湯 ~ 陽明 以肌肉之間爲表 胃腑爲裏 熱在表 則目疼不眠 宜葛根解肌湯).³⁶⁾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葛根解肌湯(傷寒)의 구체적 適應證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약간 으슬으슬하고 열이 나는 증상”이고, 또 한 가지는 “눈이 아프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상”이다.

③ 【雜病篇·寒(上)·陽明病禁忌·葛根解肌湯】

“陽明經病으로 눈이 아프고 코가 건조하고 잠이 잘

31)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1089.
 32)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1091.
 33)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1451.
 34)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1208.

35)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1449.
 36)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p.1075-1076.

오지 않을 때에는 解肌 시켜야 한다. 葛根 柴胡 黃芩 芍藥 羌活 石膏 升麻 白芷 桔梗 各一錢 甘草 五分으로 한 첩을 만들고, 生薑 세 쪽과 大棗 두 개를 넣어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醫鑿) 一名 柴葛解肌湯이라고 한다(治陽明經病 目疼 鼻乾 不得臥 宜解肌 葛根 柴胡 黃芩 芍藥 羌活 石膏 升麻 白芷 桔梗 各一錢 甘草 五分 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醫鑿) 一名柴葛解肌湯(回春).”³⁷⁾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葛根解肌湯(傷寒)의 구체적 適應證은 “눈이 아프고 코가 건조하고 잠이 잘 오지 않는 증상”이다.

지금까지 항목 ① 에서 살펴본 열 한 종류의 증상, 항목 ② 에서 살펴본 두 종류의 증상, 항목 ③ 에서 살펴본 한 종류의 증상을 합하여 모두 열 네 종류의 증상이 『東醫寶鑑』에서 제시한 葛根解肌湯(傷寒)의 適應證이고, 따라서 이를 太陰人 葛根解肌湯 적용 가능 후보 증상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항목 ① 의 증상 중 다섯 번째는 표 1 의 12 번 증상과 중복되고, 항목 ② 의 증상은 두 가지 모두 표 1 의 2 번 증상과 중복되고, 항목 ③ 의 증상은 표 1 의 3 번 증상과 중복되므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열 종류의 증상을 太陰人 葛根解肌湯 적용 가능 후보 증상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東醫寶鑑』에 수록된 後世方 葛根解肌湯(傷寒)證

연번	證狀
1	太陰人이 머리와 몸이 아프고 寒熱이 왕래하는 증상
2	太陰人이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기침하는 증상
3	太陰人이 가슴이 그득하고 潮熱이 나는 증상
4	太陰人이 머리와 몸이 아프고 四肢가 차고 가슴과 배가 아프고 嘔吐와 泄瀉를 하는 증상
5	太陰人이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뻐뻐하고 팔다리에 답답한 열이 나면서 아픈 증상
6	太陰人이 기침하고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탁해진 증상
7	太陰人이 열이 나고, 허리가 아프면서 뻐뻐하고, 다리가 수축되어 펴지 못하고, 정강이뼈 안이 끊어지는 것 같고, 눈앞에 꽃 같은 것이 어른거리고, 으슬으슬 오한이 들고는 또 열이 나는 증상
8	太陰人이 몸이 떨려 스스로 멈출 수 없고, 혹은 속에서 열이 나며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고 목이 마르고 목소리가 쉬는 증상
9	太陰人이 머리가 무겁고 목이 뻐뻐하고, 피부와 근육이 뻐뻐하며 저리고, 혹은 사기가 쌓여서 멍울이 생기는데 인후부와 목 부위에서 생기는 증상
10	太陰人이 잠깐 오한이 났다가 잠깐 열이 나고, 폐기가 손상되어 심한 기침과 구역질이 나고, 혹은 몸에 열이 나면서 발진이 돋고, 숨이 가쁘면서 기침이 나는 증상

37) 許浚 著, 金祖洙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1078.

(2) 『東醫寶鑑』에 收錄된 後世方 葛根解肌湯(瘟疫)證과 관련된 내용

① 【雜病篇·瘟疫·大頭瘟疫治法】

“봄에 발생한 瘟疫에는 葛根解肌湯이 적당하다 ~ 葛根解肌湯은 봄에 발생한 瘟疫으로 열이 나고 갈증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葛根 三錢 麻黃 黃芩 各二錢 芍藥 一錢半 桂枝 一錢 甘草 八分으로 한 첩을 만들고, 生薑 세 쪽과 大棗 두 개를 넣어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春發溫疫 宜葛根解肌湯 ~ 葛根解肌湯 治春疫 發熱而渴. 葛根 三錢 麻黃 黃芩 各二錢 芍藥 一錢半 桂枝 一錢 甘草 八分 右剉 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入門).”³⁸⁾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葛根解肌湯(瘟疫)의 구체적 適應證은 “열이 나고 갈증이 나는 증상”이다. 따라서 이를 太陰人 葛根解肌湯 적용 가능 후보 증상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東醫寶鑑』에 수록된 後世方 葛根解肌湯(瘟疫)證

연번	證狀
1	太陰人이 열이 나고 갈증이 나는 증상

3) 『東醫寶鑑』에 收錄된 기타 解肌湯과 관련된 내용

① 【雜病篇·瘟疫·瘟疫治法】

“清熱解肌湯은 유행성 瘟疫으로 머리가 아프고 열이 많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葛根 三錢 黃芩 赤芍藥 各一錢五分 甘草 一錢으로 한 첩을 만들어서 물에 달여 복용한다(丹心). 一名 解肌湯이라고 한다(清熱解肌湯 治天行瘟疫 頭痛壯熱 葛根 三錢 黃芩 赤芍藥 各一錢五分 甘草 一錢 爲剉作一貼 水煎服(丹心). 一名 解肌湯).”³⁹⁾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清熱解肌湯의 구체적 適應證은 “머리가 아프고 열이 많이 나는 증상”이다.

② 【雜病篇·小兒·發熱三朝】

“潮熱이 五日안에 내려서 傷寒인지 瘡疹인지 疫癘

38) 許浚 著, 金祖洙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1450.

39) 許浚 著, 金祖洙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1451.

인지 구별이 잘 안될 때는 四物解肌湯이 적당하다 ~ 傷寒과 瘡疹이 구별이 잘 안될 때는 맵고 서늘한 처방을 쓰는데 바로 이 처방이 그것이다(傷寒瘡疹 疫癘潮熱 五日已衰 疑似未辨者 宜用四物解肌湯 ~ 傷寒瘡疹 疑似未辨者 以辛涼之劑調之 卽此湯也).”⁴⁰⁾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四物解肌湯의 구체적 適應證은 “潮熱이 5 일안에 내리는 증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2 개의 항목에서 제시된 구체적 증상은 “머리가 아프고 열이 많이 나는 증상”과 “潮熱이 5 일안에 내리는 증상”이다. 그런데 葛根解肌湯(傷寒)이나 葛根解肌湯(瘟疫)의 適應證들과는 달리 이 두 증상들은 太陰人 葛根解肌湯과 처방명이 같은 後世方의 適應證이 아니다. 단지 ‘解肌湯’이라는 處方名의 일부만을 공유하고 있는 後世方들의 適應證들이다. 따라서 두 葛根解肌湯의 適應證처럼 太陰人 葛根解肌湯 적용 가능 후보 증상으로 바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淸熱解肌湯과 四物解肌湯의 君藥이 모두 葛根으로 太陰人 葛根解肌湯 및 두 개의 後世方 葛根解肌湯과 동일하다. 또 淸熱解肌湯을 구성하고 있는 약제는 赤芍藥이 白芍藥과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葛根解肌湯(傷寒)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四物解肌湯을 구성하고 있는 약제는 葛根解肌湯(傷寒)과 葛根解肌湯(瘟疫)의 두 處方에 모두 다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⁴¹⁾, 후보 증상으로 상정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머리가 아프고 열이 많이 나는 증상”은 표 2의 2번 증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가지 증상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東醫寶鑑』에 수록된 기타 解肌湯證

연번	證狀
1	太陰人の 潮熱이 5일안에 내리는 증상

40)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p.1768-1769.

41)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078, 1450, 1451, 1769. pp.1136-1137.

“葛根解肌湯 葛根 柴胡 黃芩 芍藥 羌活 石膏 升麻 白芷 桔梗 各一錢 甘草 五分 ~ 葛根解肌湯 葛根 三錢 麻黃 黃芩 各二錢 芍藥 一錢半 桂枝 一錢 甘草 八分 ~ 淸熱解肌湯 治天行瘟疫 頭痛壯熱 葛根 三錢 黃芩 赤芍藥 各一錢五分 甘草 一錢 ~ 四物解肌湯 卽升麻葛根湯去甘草 代黃芩也”
“升麻葛根湯 葛根 二錢 白芍藥 升麻 甘草 各一錢”

그런데 여기서 문헌을 이용한 四象方 適應證 확대 연구의 중요한 방법론 한 가지, 즉 處方을 구성하고 있는 약제의 비교를 통해서도 四象方과 後世方의 適應證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본 연구 및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四象方과 같은 이름을 가진 後世方의 適應證을 문헌에서 검토하여 이를 해당 四象方 적용 가능 후보 증상으로 상정하는 방법론을 썼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특정 四象方과 이름을 다르더라도 구성 약제가 동일한 혹은 비슷한 後世方의 適應證을 문헌에서 검토하여 이를 해당 四象方의 적용 가능 후보 증상으로 상정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선별 기준 등 구체적 방법론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Ⅲ. 結 論

四象方 중 하나인 太陰人 葛根解肌湯의 適應證을 문헌에 근거해 확장하기 위해 『東醫壽世保元』에 收錄된 太陰人 및 後世方 葛根解肌湯證을 검토하고, 또 『東醫寶鑑』에 收錄된 後世方 葛根解肌湯(傷寒), 葛根解肌湯(瘟疫)과 기타 解肌湯(淸熱解肌湯, 四物解肌湯)의 適應證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傷寒과 관련된 증상 4 종류, 瘟疫과 관련된 증상 9 종류를 太陰人 葛根解肌湯 適應證으로 제시하였다.
2. 『東醫寶鑑』에 수록된 後世方 葛根解肌湯(傷寒)證과 葛根解肌湯(瘟疫) 중 『東醫壽世保元』에 이미 제시된 증상을 제외하고 또 중복되는 증상을 정리한 결과, 太陰人 葛根解肌湯 적용 가능 후보 證狀으로 傷寒과 관련된 증상 5 종류, 瘟疫과 관련된 증상 5 종류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었다.
3. 『東醫寶鑑』에 수록된 기타 解肌湯(淸熱解肌湯, 四物解肌湯)證 중 『東醫壽世保元』에 이미 제시된 증상을 제외하고 또 중복되는 증상을 정리한 결과, 太陰人 葛根解肌湯 적용 가능 후보 證狀으

로 傷寒과 瘡疹과 疫癘 모두와 관련된 증상 1 종류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었다.

4. 본 연구 방법과 달리 특정 四象方과 이름은 다르더라도 구성 약재가 동일하거나 혹은 비슷한 後世方의 適應證을 문헌에서 검토하여 이를 해당 四象方의 적용 가능 후보 증상으로 상정하는 연구 방법론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東醫寶鑑』에서 선별한 太陰人 葛根解肌湯의 적용 가능 후보 證狀을 총괄하면 모두 11 종류인데, 이들은 모두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太陰人 葛根解肌湯證으로 언급하지 않은 증상들이다. 따라서 이 증상들은 문헌에 근거해 太陰人 葛根解肌湯 適應證을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논문>

1. 홍진우, 이명렬,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에 관한 研究 - 補中益氣湯을 例로 들어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Vol.24(3). p.28, 29. pp.27-47.
2. 박진우,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少陽人 荊防敗毒散의 適應證 확장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2. Vol.25(1). p.18. pp.17-18, 17-29.
3. 이필우, 윤창렬. 東醫壽世保元 인용문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4. 제12권 2호. p.84.

<단행본>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715, 716. pp.708-710, 716-720, 731-732.
2.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315, 1010, 1078, 1088, 1089, 1091, 1136, 1208, 1449, 1450, 1451. pp.1075-1076, 1135-1136.